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외국어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이희원

서울대학교 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교수

1. 연구배경

서울대학교는 학부생들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10월 기준, 세계 40여 개국과 700건 이상의 국제교류 협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제학술교류 및 학생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학문 영역별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의 국제화를 달성하고 치열한 글로벌 교육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외국인 석학을 점진적으로 초빙하여 왔다. 해외 명문대학들과의 협력으로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교수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여 방문교수 338명,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교수 162명을 포함하면 그수가 총 1,023명에 이르고 있다(서울대 교무처, 2012). 더욱이 31개 학과에서 외국인 시간강사 30명을 포함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대우강의교수를 57명 총원함으로써, 외국인 교수 수는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학생 총 인원 26,030명의 7.7%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대학교가 명실 공히 글로벌 대학으로 분명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경영대학의 학부 강의 30%, 인문대학과 공과대학의 학부 강의 15%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강의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각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 교수가 담당하는 외국어 강의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학부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게 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 교수 초빙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들이 외국어 강의 환경에 적응하여 초빙된 외국인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의 외국어 학업 능력은 학습자의 학습 특성과 학습 배경

의 차이로 인하여 그 편차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외국어 강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만을 기울일 뿐,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들의 외국어 학습 역량을 훈련하기 위한 학습 지원이나 관리는 전무한 상태이다(오희정, 이희원,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들에게 외국어 학습 능력뿐 아니라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학업 역량을 함양하도록,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 현황 및 교육 요구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그 교육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교수의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수집하였고 외국인 교수의 강의계획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영어 구사능력 뿐 아니라 외국인 교수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외국어 강의를 수강할 때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가 강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 교수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어 발표 및 토론 연습,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줄 수 있도록 ‘그룹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영어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을 운영하여 외국어 학업능력을 극대화 시킬 뿐 아니라 기초 학업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학술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주제, 즉 1) 학술 영작문, 2) 영어 의사소통, 3) 영어 발표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 주제별로 워크숍과 소그룹 튜터링을 병행적으로 운영하였다. 특강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세 차례 실시했으며, 소집단 교습은 120분 수업 3회로 이루어졌다. 각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본 연구는 외국인 교수의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술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학술 영작문, 영어 의사소통, 영

어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소그룹 실습(튜터링)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학술 영작문 워크숍에 대한 평가

학술 영작문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그 특강의 난이도는 적절했으며, 전반적인 특강 내용과 더불어 특강의 세부 내용이 외국인 교수의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작문 작성 과정, 영작문 구조 및 다양한 표현, 유용한 영작문 참고 도구, 외부자료 활용 등이 유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워크숍의 기간이 짧아서 학술 영작문의 기본 내용을 다루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더 풍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학술 영작문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특화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2. 영어 의사소통 워크숍에 대한 평가

영어 의사소통 워크숍은 강의실 안에서 외국인 교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참석자들은 영어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외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교수와 정중하게 묻고 대답하는 방법, 적절한 시점에 의견 제시 방안 등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토종 한국 학생들에게 유용한 표현을 학습시켜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3.3. 영어 발표 워크숍에 대한 평가

영어 발표를 위한 기본 원칙과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각 영역별 유용한 영어 표현, 효과적인 영어 발표 요령과 방법을 통하여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분석하며 영어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3.4. 학술 영작문 튜터링에 대한 평가

학술 영작문 튜터링은 3회 수업으로 각 120분 동안 진행되었다. 난이도는 다소 쉬웠지

만 전반적인 학술 영작문 능력, 영작문 구조잡기, 다양한 영어 표현, 참고문헌 인용하기, 바꾸어 표현하기와 요약하기에 대한 자신의 현재 수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었고, 튜터링을 통하여 외국인 교수의 영어 강의를 다소 편해졌으며, 영어 실력, 영어수업 학습능력,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신장되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튜터링의 경우, 참여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튜터링 내용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 점이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튜터링을 운영한 강사는 참석자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튜터링 참여 전 참여자들의 요구와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별 튜터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5. 영어 의사소통 튜터링 평가

영어 의사소통 튜터링도 3회로 운영되었고 매회 120분의 수업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개인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튜터링을 통하여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영어로 적절한 시점에 의견 제시하는 방법을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이를 통하여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게 편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영어 실력과 학습 능력은 약간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과 담당 강사 모두 튜터링의 수업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3.6. 영어 발표 튜터링에 대한 평가

튜터링을 진행한 강사들은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석 의지로만 수업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꾸준한 출석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영어로 표현하는 법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표를 촬영하여 같이 분석하는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영어 강의 수강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앞으로도 튜터의 적절한 지도를 받으며 영어로 많이 쓰고 말하고 발표할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는 튜터링이 자주 개설되기를 희망하였다.

4.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업 역량을 훈련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울대학교 강의에 활용되는 다양한 외국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뒤 교육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워크숍이나 튜터링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로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후 영어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데 학업수행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영어 강의 학습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유형별로 유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영어 글쓰기, 발표 및 토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 글쓰기, 발표 및 토론과 관련된 질문·답변 게시판을 개설한다거나 영어 강의 수강과 관련된 학습 자료나 정보가 상시 제공됨으로써 영어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국제화를 위하여 영어강의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된 영어강의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외국인 교수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영어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영어 강의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오희정, 이희원 (2010).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과 지원 방안 탐색. *현대영어교육*, 11(1), 191-212.
- 서울대학교 교무처, (2012). 외국인 교원 현황. 서울: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 이희원, 장지연, 김우연 (2012).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외국어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희원(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교수)
 공동연구자 장지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박사)
 연구 보조 김우연(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 연구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연구지원 : 서울대학교 기획처